

# 스마트 시니어 행복한 시너지





# 스마트 시니어 행복한 시너지

## CONTENTS

04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12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20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28	에스케이하이텍(주)
36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부평점



# 스마트 시니어

2019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우수사례집

## 스마트 시니어 행복한 시너지



# 행복한 시너지



# 고령노동자에 대한 배려 넘어 문화이자 복지로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한국남동발전(KOEN) 영흥발전본부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Clean & Smart Energy Complex로 발돋움하고 있는 국내 최초 800MW급 대용량 석탄화력 발전소다. 고효율, 최첨단·친환경 설비를 갖추고 수도권 전력 사용량의 약 23%에 달하는 전력을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도권 전력공급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영흥발전본부는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대기환경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환경설비로 국내 친환경 화력발전의 표본이 되고 있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 >>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활동

- 근골격계 부담 작업 여부 조사 후 고령작업자 배제
- 근로자 상시쉼터 (1발전처 설치 완료, 2·3발전처 설치 예정)
- 무더위 쉼터 내 이동식 에어컨 비치
- 고령노동자 생애주기 재설계 교육 시행
- 행복찾기 직원 상담 서비스 제공
- 고령노동자 업무시간 자율 조정을 위한 유연근무제 시행
- 작업장 내 혈압계 비치
- 헬스장 무료 개방



대표

유향열

설립일

2001년 4월 2일  
(한국남동발전(주))

인원

629명

매출액

2조 8,142억 원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위치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남로293번길 52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 한국남동발전(주) 영흥발전본부 열심히 일한 이들의 삶을 존중하는 전문위원제

### 나이가 아닌 경험을 보다

초고령사회의 성공은 고령노동자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이른바 ‘스마트 시니어(smart senior)’는 고령화사회를 맞이하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독일, 미국, 핀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은퇴 노인의 경험을 활용하고, 고령 직원을 일터에 더 오래 모시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에서도 스마트 시니어, 즉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고령노동자를 활용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사실 영흥발전본부에서 법으로 정한 60세 정년 이상의 고령노동자를 찾아볼 수는 없다. 영흥발전본부의 직원 중 고령노동자를 굳이 구분한다면 정년이 되기 전 일정기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다. 이들 고령노동자들은 정년 2년 전부터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바로 전문위원 제도다.

전문위원이 되면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근무제로 근무 일수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매일 소속된 부서에서 타이트하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있게 근무하면서

2년 전

고령노동자들은 정년 2년 전부터  
전문위원 제도에 공모해  
활동할 수 있다.

5회

외부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복찾기 직원 상담 서비스를  
본인과 직계가족이 연 5회 이용할 수 있다.



자신이 한창 때 일하던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현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영흥발전본부에서 품질 분야 일을 담당했던 방희원 전문위원 역시 정년을 앞두고 임금피크제 적용과 함께 품질검사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랫동안 품질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퇴직이 임박해서 임금피크제 대상자 보직 공모에 응했고 기존에 하던 일의 일환으로 품질검사 전문가를 지원했습니다. 현재는 우리 회사가 건설 중인 플랜트인 고성 화이화력, 강릉 안일화력의 설비를 검사하러 출장을 가곤 합니다. 나름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할 수 있어서 책임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창 품질 담당자로 일할 때에 비해서는 훨씬 경감된 일을 하고 있다. 고령노동자들에게 맞게 짜여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람도 크다. 회사 입장에서도 ‘스마트 시니어’로 이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제도로 만족감이 크다.

### 고령노동자 퇴직 후 인생 이모작 위한 배려

대부분 전문위원들의 경우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개인 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과 형태를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영흥발전본부는 공기업으로서 일찌감치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고령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을 앞둔 직원들이 생애설계를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퇴직을 앞둔 고령노동자들에게 영흥발전본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희망자들의 지원을 받아 창업 등 인생 이모작을 위한 ‘고령노동자 생애주기 재설계 교육’을 제공한다. 방희원 전문위원도 이 교육을 희망해 매주 한 번씩 참여하고 있다.

“와인 소믈리에, 소셜커머스 교육도 받고, 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것들을 체험하며 가능한 다양한 문을 두드려보고 색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아 좋습니다. 교육기관에서 기업체 대표들과 유대관계를 갖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고령노동자 생애주기 재설계 교육’은 퇴직 이후의 준비를 위한 고령노동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준다는 면과 함께 이후의 생애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고령노동자 친화적 제도로 환영받고 있다.

스마트 시니어 즉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고령노동자를  
활용하는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 적절한 쉬이 안전을 담보한다

현장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근로자 휴게시설 '한마음 쉼터'도 고령노동자들에게는 반가운 시설이다.

'한마음 쉼터'는 2018년 전국적인 폭염특보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됐던 혹서기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에 앞장서고자 설치됐다. 특히 본부장의 경영방침인 '산업안전 혁신으로 Four-Zero 사업소'를 구현하고자 작업 현장과의 접근성이 뛰어난 위치에 설치했다.

한마음 쉼터 내부에는 냉난방 시설, 냉장고,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휴대폰 멀티충전기 등이 비치돼 있다. 그리고 외부에는 흡연부스, 안전화 털이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완비한 휴게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현장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한다. 안전품질실 이근배 차장은 쉼터 설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많은 고령노동자들이 피로를 느끼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그분들의 사고를 어떻게 줄일까 고민하다가 피로도를 낮추는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안전품질실 자체 아이디어이기도 하지만 협력업체에서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협력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기했던 사항인 만큼 근로자들의 반응이 좋아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복찾기 직원 상담 서비스는  
고령노동자들이 겪는 상실감 등을  
건강하게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다.**

## 차별은 없고 배려가 있다

이외에도 작지만 사소한 배려들이 사업장 곳곳에 묻어 있다.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는 헬스장,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해수탕 등 다양한 복지시설들에서 노동자들이 육체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다.

식당, 정문 출입구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된 곳에 혈압계를 비치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협력업체는 야외에서 오래 근무하는 이들이 많은데, 근무 특성상 순식간에 혈압 문제가 느껴질 수 있어 혈압계가 유용하다. 스스로 혈압을 체크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수시로 관리할 수 있다. 모든 직원들을 위해 설치한 것이지만 시행하고 보니 역시 고령노동자들의 이용 비율이 높다. 평상시 스스로를 책임지고 관리하니 안전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영흥발전본부에서는 행복찾기 직원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고령노동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체 근로자들과 직계가족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 5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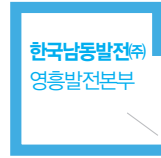
행복찾기 직원 상담 서비스의 경우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 이용 실태가 비공개이긴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고령노동자들이 겪는 상실감 등을 건강하게 극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더욱 유용할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와인 소믈리에, 소셜 커머스 교육 등  
‘고령노동자 생애주기 재설계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영흥발전본부의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고령노동자 생애주기 재설계 교육 외에는 고령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볼 수 없다. 사실 고령노동자만을 위해 특별한 제도를 만든다는 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자칫 차별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 대상에 집중하기보다 직원 전체의 육체적, 정신적 안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고령노동자들이 근무하기 편한 작업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영흥발전본부가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 방희원 전문위원



### 새로운 인생 설계의 기회를 얻어 감사합니다

품질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해 오다가 정년을 앞두고 품질검사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 일할 때는 지금처럼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적절하게 조정된 업무량에, 유연근무제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육체적으로 힘은 덜 들고, 제가 일했던 분야의 경험과 지식은 살려 전문위원으로서 회사를 대표해서 건설 중인 발전소 설비를 검사하러 나가고 있어 보람됩니다. 저와 같은 입장의 동료들도 대부분 현업에서의 경험을 살려 전문위원으로 활기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일 중에는 남동발전에서 처음 시도하는 100MW급 화력발전소 건설이라는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업무량은 전보다 줄어들었는지 모르지만 회사를 대표한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있을 때는 휴가를 내고 싶어도 앞뒤 사정을 생각하다 보면 자유롭게 쉴 수 없었는데, 유연근무제를 하다 보니 하루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평일 낮에는 하기 힘든 운동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 여행도 가고 여가활동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또한 현재는 회사에서 마련한 고령자 생애주기 재설계 교육을 받으며 퇴직 이후의 삶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 더 나아가 훗날 어떤 생이 펼쳐질지 모르기에 잘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교육기회를 얻고, 그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 Key Message

줄어든 업무량, 근무 시간을 조정한 유연근무제로 인해 덜 힘들면서 제 경험과 지식을 살려 전문위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발전소 설비를 검사하러 나갈 때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문위원제도를 만든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 최동영<sup>(56)</sup> 과장



### 잠시 쉴 수 있는 쉼터가 정말 유용합니다

1988년에 입사해, 이곳에서 2005년부터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발전소 일은 규모가 거대해서 체력이 좋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회사가 담당하는 정비 관련 일은 손과 어깨, 팔목 등을 많이 사용해서 언제든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아직 근골격계 질환을 겪어 본 적은 없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 전 안전체조를 하고 질환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꼭 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폭염을 겪으면서 모기업 차원에서 현장에 쉼터를 마련해줘서 동료들과 함께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폭염 상황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니 피로가 누적되는 일이 없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직원들이 간절히 원하던 것이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시설인데 선도적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기업이 복지시설에도 신경을 써서 해수탕과 헬스장 등이 설치됐는데,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정말 신경쓰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작업 중에 쉼터에서 토크를 휴식을 취하고, 작업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으니 안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모기업과 함께 펼치고 있는 '건강 up, 기부 up' 프로그램은 걷기 운동도 하고 금연도 하고 저절로 기부까지 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 Best Practice

모기업이 협력업체 현장에 만들어 준 쉼터가 참 유용합니다. 폭염이 찾아왔을 때는 더위를 피하는 곳으로, 평상시에는 잠시 쉴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합니다. 피로가 누적되는 일이 없고,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직원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 단순 지침에서 더 나아가 공학적 설계로 고령노동자를 배려한다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역사는 1965년 아시아자동차로부터 시작됐다. 아시아자동차는 1976년 기아자동차로 합병됐고, 현재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으로 이름을 바꿔 지금까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버스와 군수차량 생산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인 품질향상을 통해 현재 RV차량 및 승용차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생산능력은 62만대에 달한다. 그리고 그중 80% 이상을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국가대표 기업이자,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향토기업이다.

현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근로자는 총 8천여 명으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한편 글로벌 기업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일류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 >> 고령노동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활동

- '근골예방 TFT' 구성  
- 근골격계 질환 위험노출 공정에 대한 공학적 개선
- 중량물 견인은 장비 호이스트를 활용하도록 개선
- '찾아가는 재활치료' 프로그램 실시  
- 현장에 물리치료사들이 직접 방문
- 뇌심혈관계 기초 질환자 상담  
- 전남대 직업환경의학과와 산학협력, 월 1회 실시



대표

박한우, 최준영 사장

설립일

1976년  
(기아자동차(주))

인원

8,100명

매출액

7조 4,000억 원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277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건강해지는 몸 · 젊어지는 마음 · 행복한 현장

### 국가대표 글로벌 일류 기업이자 향토기업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공장 합리화 사업과 지속적인 투자, 고수익 차종의 투입과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를 통해 내외적으로 가장 놀라운 속도로 발전한 선진 공장이다. 특히 지역과의 역사 깊은 광주의 중추기업으로 지속적인 지역 육성산업과 특수, 상용차를 비롯한 다양한 생산차량 및 군수차량을 생산하는 등 전략적으로 다양한 차량 생산이 가능한 공장이다.

특히 올 뉴 쏘울, 쏘울 EV, 올 뉴 카렌스의 완성차1공장과 올 뉴 쏘울, THE SUV 스포티지의 완성차2공장은 첨단 혼류생산의 명품 CUV의 요람으로, 그리고 봉고트럭을 생산하며 봉고 신화를 잇는 완성차3공장은 지난 10여 년간의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며 3개의 완성차 생산공장을 비롯한 최첨단 혼류생산 시설을 갖춘 광주공장의 대표시설들이다. 공장 내 오폐수처리장, 재활용장 등을 구축하며 환경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친환경 시설도 돋보인다.



# 60 ▶ 39 건

2010년 60건을 기록했던  
근골격계 질환 사례는 2017년 39건으로  
급격히 줄었다.

# 1 회

전남대 직업환경의학과와  
산학협력을 맺어 월 1회 뇌심혈관계  
기초 질환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고령노동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질환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다.

### 고령노동자를 위한 움직임, 더 능동적으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노동자는 총 8천여 명, 고령노동자는 3,468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46%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타 현장과 비슷한 수준의 연령 구성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장 라인이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규 인력 충원 속도는 점차 느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머지않은 시기에 고령노동자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자동차 공장의 특성상 고위험 작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 컨베이어 벨트의 움직임에 맞춰 반복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중량물로 인한 부상, 높은 곳으로부터의 추락, 미끄러운 바닥에서의 낙상 등은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역시 피할 수 없는 요소다.

근골격계 질환 위험노출 공정에  
대한 공학적 개선 및 이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양태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업데이트했다.

“컨베이어 벨트 작업이 상대적으로 위험  
요소가 적은 대신 같은 근육을 지속적으로  
쓰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상적인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안전환경팀의 이병조  
팀장은 그래서 ‘근골예방 TFT’를 구성했다.  
근골예방 TFT는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작업환경

및 자세 개선에 대한 마인드를 심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근골격계 질환 위험노출 공정에 대한 공학적 개선 및 이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근골격계 질환 발생 양태에 대한 정보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토대로 개선방향을 협의하는 한편 실제 현장에 적용된 사항을 평가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한 보완작업을 진행한다.

이러한 개선작업을 통해 현장에서 중량물을 직접 견인하는 일이 사라졌다. 모든 중량물은 호이스트 등 장비와 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전면적으로 개선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무거운 것은 기계를 이용하라’는 지침을 만드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학적 측면에서 면밀히 계산된 포인트에 장비와 기계를 설치하고 이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데에 있다.



## 새로운 사람들이 일으킨 새로운 움직임

생산 현장에 새롭게 찾아든 것은 비단 물적 변화뿐만은 아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라인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물리치료사들이 바로 그들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물리치료사들을 고령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도록 했다. 물리치료실에서 만날 수 있던 물리치료사를 생산 현장에서 만나게 된 고령노동자들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그런 놀라움도 잠시, 고령노동자들은 이내 진지한 얼굴로 물리치료사가 설명하는 스트레칭법 등을 열심히 청취했다.

그렇게 시작된 '찾아가는 재활치료' 프로그램은 상당한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각 공장마다 자신의 라인에는 언제 물리치료사가 방문하느냐는 문의가 늘고, 쉬는 시간이면 공장바깥으로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모두 한 데 모여 열심히 강의와 시범을 듣고 따라했다.

그러자 변화가 시작됐다. 2010년 60건을 기록했던 근골격계 질환 사례는 2017년에 39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 올바르게 적절한 스트레칭과 운동법을 익힌 고령노동자들이, 회복이 어려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되기 전에 스스로 예방을 한 덕분이었다. 2018년 산업재해 관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재해의 인정이 폭이 넓어지며 근골격계 질환 사례 숫자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이 역시 곧 낮아질 수 있을 거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가능하다. 그동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기록한 개선 기록이 그러한 전망을 넉넉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은 기계를 이용하라'는 지침을 만드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공학적 측면에서 이를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치밀한 설계를 했다.**

## 마음에도 불어오는 '건강한 바람'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고령노동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추적관찰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건강검진결과를 일방적 통보 방식에서 전년 데이터와의 비교를 통한 상담방식으로 바꿨다. 그러자 의례적으로 검진결과를 보던 고령노동자들의 반응 역시 바뀌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숫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자 더 진지한 자세로 건강에 대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사내 보건소에 대한 신뢰 역시 높아졌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전남대 직업환경의학과의 산학협력을 맺어 월 1회 뇌심혈관계 기초 질환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했다. 고령노동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질환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한 고령노동자가

**건강검진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방식에서 상담을 통한 전년 데이터와의 비교방식으로 바꾸었다.**

지주막하출혈 직전인 상태인 것을 발견해 긴급 수술을 시행했고, 지금은 완치돼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전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고령노동자를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덕분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의 평온했던 삶이 갑자기 뒤바뀔 뻔 했던 위기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강한 변화는 심리적인 부분에도 나타나고 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운영하고 있는 '마음산책 심리상담소'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가족의 구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곳은 2012년 설립된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발걸음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세대 간의 변화에 힘들어 하는 고령노동자들의 방문 역시 상당히 많다고 한다.

사외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그 비용이 적지 않을뿐더러 상담소를 찾아가는 데에 적잖은 용기가 필요하지만, 사내에 있으면 누구나 큰 부담 없이 상담실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역시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일이 더 이상 힘들지 않다. 모기업은 물론 협력업체 사원들 역시 똑같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이렇게 다양한 노력과 배려 덕분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나이로 인한 작업상 어려움을 찾아보기 힘들다. 고령이라도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과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덕분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안에서 근무하는 모두가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유일지도 모른다.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 이병조 안전환경팀장



### 고령노동자의 질환, 막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자들은 자신의 질환을 '노화의 과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라는 권유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그런 자세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생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면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공장의 작업현장에 투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령노동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즉석에서 해결책을 제시받을 수 있다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고령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건 비단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비책뿐이 아닙니다. 뇌심혈관계통 역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생명과 직접 연관된 부분이다 보니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에 따라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결과에 대한 상담을 통보할 때, 우선 상담 자리로 이끌어 좀 더 내밀한 대화를 통해 향후 치료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짜고 있습니다. 감성적 접근을 통해 당사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이 실제 실행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될 고령노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하리공장에서는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치료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벤치마킹을 한 후 저희 실정과 비교해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 Key Message

노화는 막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질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생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면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작업현장에 투입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대그린푸드

## 한현수<sup>(50)</sup> 조리실장



### 누구에게나 활짝 열린 소통 고령노동자의 활력입니다

광주공장의 식탁을 책임진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수야 있겠지만 마음속은 언제나 보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하루에 두 번 배식이 이루어집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8시. 교대 근무에 맞춰진 식사시간인데, 덕분에 주방 노동자들의 하루 일과는 오전 4시에 시작돼 자정 무렵에나 끝이 납니다. 주방에는 불이 꺼질 틈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종량물은 주방에서 더 많이 들고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주방 특성상 기계나 장비를 들여놓기 어려워 모두 사람이 직접 옮겨야 하거든요.

특히 여성 고령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방 특성상 종량물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식재료들은 될 수 있으면 작은 단위 포장으로 바꿨죠. 쌀은 20kg 포대에서 10kg 포대로, 고추장이나 된장 같은 양념류도 5kg 이하 단위로 교체했습니다.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있지만, 고령노동자들의 건강을 위한 투자였기에 회사에서는 시행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는 양방과 한방 병원 모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성 고령노동자들은 특히 손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제든지 물리치료를 받고 침을 맞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않고 찾아가게 되죠. 주방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반갑고 고마운 일입니다.

여성 고령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주방 특성상 종량물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재료들은 작은 단위 포장으로 바꿨습니다. 쌀은 10kg 포대로, 양념류도 5kg 이하 단위로 교체했죠. 비용이 부담됐지만 회사는 고령노동자를 위한 시행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 Best Practice





# 건강과 풍성한 은퇴 후 삶, 두 마리 토끼 모두 지원합니다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 >> 고령노동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활동

- 만 40세 이상 근로자 대상 2년에 1회 종합검진 실시
- 만 40세 이상 근로자 대상 4년에 1회 대장 내시경 검사
- 금연, 비만 목표 달성 시 포상
- 은퇴 예정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1997년 형강 공장 가동 시작과 함께 역사가 시작된 곳. 동국제강 내에서는 부산공장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유서 깊은 곳이다. 현재 형강공장과 봉강공장, 제강공장에서 각각 H형강과 일반형강, 철근, 반제품 등을 생산한다. 모기업과 7개 협력업체 730여 명의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초를 생산하는 데 여념이 없다. 물론 그들 역시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저마다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대표

장세주 부회장

설립일

1954년 7월  
(동국제강(주))

인원

494명

매출액

1조 918억 원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195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건강은 물론 노후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 신입사원이 고령노동자가 되는 공통의 경험

시간만큼 공평한 것이 또 있을까? 누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시간은 똑같이 흐른다. 푸릇한 젊음의 상징과도 같았던 신입사원들이 경험을 얻고 차츰 경력을 쌓으며 그와 함께 후배들을 맞이해 누구보다 앞장서서 회사를 이끌어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퇴직을 눈앞에 두게 된다. 그제야 멈추어 서서 주위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은퇴를 앞둔 거의 대부분의 조직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다.

**40**세 이상

각종 검진 프로그램은 사업장의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지만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 다시 힘차게 뛸 수 있다는 자신감

30년 가까이 설 새 없이 달린 후에야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근로자들. 그들 앞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출발선이 기다리고 있다. 흐르는 시간을 막을 수 없기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너머로 다시 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는 그동안 버틸 수 있게 힘이 돼준 건강, 또 하나는 나와 가족의 생계에 대한 계획이다.

**1**년 이내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퇴직 대비 교육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모두 어느 한 순간 대비책이 나올 수 없는 중요하고 무거운 일들이다. 그래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은퇴를 앞둔 고령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고민을 시작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고령노동자들을 위해 특화됐다 말하기는 힘들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연령대에 따라 검사의 종류만 달라질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이 좋을 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면 은퇴 이후에도 신입사원 못지 않은 건강을 이어갈 수 있다는 기대가 가능하다.

### 연령별로 검진 프로그램을 달리한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각종 검진 프로그램. 두 번째는 금연 유도과 비만 관리 등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이 그것. 그중 각종 검진 프로그램은 사업장의 전 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건강검진 외에도 40세 이상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실시한다. 성인병으로 인한 각종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예방법을 택한 것. 뿐만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 발생을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물론 40세 이상의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이와 같은 검진이 실시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는 종합혈액검사를 실시한다. 간단한 검사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검진을 통해 유소견자가 생기면 사내 상주 전문 의료 인력과 상담이 시작된다. 주기적인 관찰과

검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지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물론 직무와 관련된 검사도 진행한다. 사전 조사 자료를 통해 해당 직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직무자에게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취합된 결과를 종합해 심층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안전환경팀에서는 각종 조사 자료와 함께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한다. 작업현장과 작업방법을 면밀히 관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꼼꼼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조사와 관찰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 현장

**첫 번째는 각종 검진 프로그램.  
두 번째는 금연 유도과 비만 관리 등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환경 개선 혹은 작업 방식 개선의 처방을 내놓는다. 이와 더불어 각종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등의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하기도 한다.

**금연, 비만관리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목표에 도달하면 특별한 포상이 주어진다.**

##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건강관리는 생활습관과 직결돼 있다. 하지만 생활습관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끊임없는 노력과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내 전문가들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균 연령대가 높다 보니 오랫동안 몸에 익은 습관을 바꾸기 위한 강요는 오히려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예상도 가능했다. 다만 금연, 비만관리 등의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는 목표 도달 시 다양한 포상을 한다.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포상이지만,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는 특별한 상품이 지급된다. 바로 최고경영자인 공장장 명의의 축하화분이 그것.

축하화분은 목표 달성자가 아닌 가족에게 전달되고 화분에는 공장장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건강관리에 힘써 당신의 가족 덕분에 우리 동국제강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인데, 건강관리는 가족과 회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한다. 자연스레 동기부여가 되고 성공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성공사례들이 공유되면 사내 전반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질 것이라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의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은 현재까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

## 제2의 인생, 더 안전하고 힘차게

동국제강에서는 은퇴 예정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동국제강그룹 연수원에서 자체 개발해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이 프로그램은 2박 3일 동안 매 차수 2~30명 정도의 1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들이 참여한다.

주요 내용은 퇴직 후 현실 직시 및 자신과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성공적인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균형 잡힌 계획 수립, 은퇴 이후의 자신감 배양 방법 등이다. 강의는 모두 외부 전문강사들에 의해 진행된다. 이 과정을 통해 직장생활 정리법, 자아 정체성 확립법 등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은 물론 퇴직 후 퇴직금 재테크와 회사 밖 인간관계형성법 등이다.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상세한 설명과 다양한 사례소개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다. 알음알음 경험만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조언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데이터와 함께 소개하는 다양한 은퇴 이후 대책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랫동안 현장에서 각종 자료를 만들고 그것을 새롭게 업데이트하는

데에 익숙했던 베테랑 엔지니어들에게 환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교육 기간을 늘리면 좋겠다는 현장의 반응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노동자뿐 아니라 전 구성원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현장을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동국제강 포항공장. 그들은 언젠가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인증을 받고 싶다는 욕심을 숨기지 않는다. 물론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다. 인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누구나 웃으며 퇴근하고, 그리고 누구나 건강하게 정년을 채우는 현장을 만들기 위한 중간과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 대비 교육은 퇴직 후 현실 직시 및 자신과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등 자신감 배양을 목표로 한다.**



동국제강(주)  
포항공장

## 최해숙 관리팀 과장

베테랑, 언제나 기댈 수 있는  
동국제강의 자산입니다

동국제강 포항공장은 고령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이 더 안전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항상 현장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 덕분에 지금 이 순간도 동국제강이 더 많은 곳에서 더 안전한 공간을, 더 든든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오랫동안 동국제강 포항공장을 지켜 온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존재합니다.

건강증진을 위해 40세 이후 적용되는 각종 건강검진들을 통해 조금 더 빈번하고 자세하게 건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소견자 발생 시 평소보다 더 철두철미한 추적관찰을 하는 건 물론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은퇴예정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더해집니다. 포항공장뿐 아니라 전국의 동국제강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평생을 현장에 헌신한 베테랑들을 위한 회사의 예우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 포항공장에서는 고령노동자라는 말이 참 어색해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 아니라 경험이 많은 분들일 뿐이거든요. 정년퇴직을 목전에 두신 분들도 저희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분들입니다. 특히 필요로 하는, 그래서 항상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대부분의 작업 매뉴얼들이 바로 그 베테랑 엔지니어들의 감수를 꼭 필요로 하거든요.

마지막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소중하고 생각하고 최고로 예우하는 곳. 그곳이 바로 동국제강 포항공장입니다.



## Key Message

건강증진을 위해 40세 이후 적용되는 각종 건강검진들을 통해 조금 더 빈번하고 자세하게 건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소견자 발생 시 평소보다 더 철두철미한 추적관찰을 하는 건 물론이지요.

동국제강(주)  
포항공장김칠덕<sup>(57)</sup> 안전환경팀 계장퇴직 후 계획은 세워주고,  
고민은 들어주니 고마울 수 밖에도

동국제강 포항공장의 안전환경팀에 속해 있습니다. 오랫동안 직접 현장을 누비며 안전, 보건에 관련된 다양한 개선 작업을 최전선에서 이끌어왔습니다. 이제 몇 년 후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죠. 그렇기에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의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자이자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금연과 체중관리 등 생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처방과 진행이 가능해졌죠.

실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데이터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진행 경과 등을 묻는 등의 인사를 나누는 편이 훨씬 효과가 좋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건강에 대한 긍정적 관심이 긍정적 행동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체력관리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사내 뿐 아니라 사외 시설을 이용해 체력단련을 하는 케이스들이 부쩍 늘었거든요. 이런 분위기에 지역 보건소 등 외부 전문가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강연이 더해지자 시너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근무복을 입고 출근할 날이 몇 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심란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선배들에게 은퇴에 대해 이런저런 것들을 물을 때도 많지만,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덕분에 '그래도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마음이 든든합니다.

앞으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좀 더 길게 진행되면 어떨까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 대한 기억을 좀 더 오래, 그리고 깊게 간직할 수 있을 테니까요.

최근에는 금연과 체중관리 등 생활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더 정확한 처방과 진행이 가능해졌죠.

## Best Practice





# 일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합니다

에스케이하이텍(주)

에스케이하이텍은 경영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기업핵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기업지원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SK그룹 자회사로 현재 SK하이닉스의 식당, 통근, 경비보안, 환경미화 및 기숙사 운영 등의 캠퍼스 운영과 제품창고, 운송의 물류지원 서비스, 교육운영 서비스, 네트워크, 정보통신 공사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SK그룹의 기준에 맞춰 안전보건 환경을 갱신하고 있는 에스케이하이텍은 고령노동자를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 고령노동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활동

- 휴게 공간 환경 개선
- 고령노동자에 대한 건강증진활동
- 금연 및 음주관리
- 식습관 및 영양지도



대표이사

정우진

설립일

2008년 3월 18일

인원

26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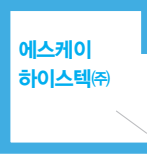
매출액

3,166억 원

위치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 에스케이하이텍(주)

# 편안한 쉼과 건강 관리로 사람을 배려한다

### 환경 개선 사업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일부

에스케이하이텍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의 생산 현장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SK하이닉스의 식당, 통근, 경비보안, 환경미화 및 기숙사 운영 등의 캠퍼스 운영과 제품창고, 운송의 물류지원 서비스, 교육운영 서비스, 네트워크, 정보통신 공사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기 때문에 협력업체와의 협업이 무척 중요하다. 인원도 에스케이하이텍 269명, 협력업체 3,287명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절대다수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근무 환경 개선은 모기업인 에스케이하이텍이 협력업체의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셈이 된다.

에스케이하이텍의 업무 중 고령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곳은 청소미화 업무다. 협력업체 중 청소미화와 경비 업무는 발렉스서비스가 담당하는데, 발렉스서비스 이천사업소 근무자 1,000명 중 375명이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다. 지금까지 대형 안전사고는 없었지만, 고령노동자들은 연령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의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크다.

# 37.5%

청소미화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발렉스서비스’의 이천사업소  
근무자 1,000명 중 375명이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다.

# 2m²

에스케이하이텍은  
휴게공간의 기준을 건물당 최소 1개소,  
1인당 2m²로 기준을 세웠다.  
노동부 권고 기준 1인당 1m²의 2배다.



에스케이하이텍은 안전보건경영 시스템 안에서 고령노동자들이 피로로 인해 건강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고령노동자를 위한 건강증진활동을 추가하고 맞춤형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고령노동자 스스로 노화에 따른 기능 저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생활습관의 변화를 통해 자신의 작업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 법적인 기본, 그 이상을 지향한다

미화원 휴게실 환경 개선은 조경과 미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에스케이하이텍 지원팀이 진행했다. 지원팀 이승진 대리는 개선 과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환경 개선을 시작할 때 염두에 둔 것은, 기본적인 것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적인 것을 중심으로 체크하고, 그리고 법적 기준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죠.”

2018년 8월 미화원 휴게실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수립했다. 구역, 시설에 대한 필수사항과 비품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나눠 기준을 세웠다. 예를 들면 휴게면적은 휴게실 사용을 위한 이동거리를 반영해 건물당 최소 1개소, 1인당 2m²의 휴게 공간으로 기준을 세웠다. 노동부 권고 기준이 1인당 1m²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휴게 공간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휴게공간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고 화장실이나 배전실 등 혐오구역이나 안전위험 구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정했다. 미화원 휴게 및 편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전용 구역을 마련하는 것이다. 시설 필수 사항으로 휴게 매트, 냉난방 시설, 전기전자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전기시설, 개인 물품 분실 방지를 위한 열쇠 도어락 등을 규정했다. 또한 근무복을 보관할 수 있는 락커를 1인당 1개, 위생적인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는 휴게실당 1개씩 비치하도록 했다. 청소미화원들이 근무하는 건물 30개소의 실태조사에 나서 보니, 19개 건물은 기준 대비 양호했으나, 11개 건물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에스케이하이텍스는 2017년 1차 미화원 휴게실 환경개선을 통해 상급의



미화원 휴게실을 갖춘 건물을 61%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미화원이 55명으로 가장 많은 건물에는 9개소, 374㎡의 공간을 확보했고, 외곽청소 담당 미화원 휴게실에는 샤워실이 포함돼 있으며, 영빈관 건물은 별도의 객실을 제공 받아 휴게실을 마련했다. 하지만 2018년 실태조사를 해보니 여전히 휴게실 면적이 부족한 건물도 있으며, 즉시 개선이 필요한 부적합 건물도 존재했다. 곧바로 미화원 휴게실 개선계획을 세워 기준대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소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2,3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 7개 휴게소를 기준에 맞춰 신설했고, 정문이나 식당 등 휴게구역이 마땅치 않은 4개소는 대체 휴게실을 마련했다. 나머지 휴게실에도 부족한 시설을 보완했다.

2018년 10~12월에 확정된 안으로 시설 공사를 시행했다.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칸막이, 도배, 전기 판별 등 건축 공사와 전등 콘센트 등 전기 공사, 공조 공사를 실행했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과 비품도 양호한 상태로 갖춰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저희는 구역, 시설의 두 가지 필수사항과 권고사항인 비품의 3가지 형태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필수사항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는 권고사항까지 갖춰 ‘중 등급’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0.5~1%**

매년 정기 건강진단 유소견자 숫자와 재검율이 -0.5~1%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연 및 음주 관리, 식습관 및 영양지도,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지도도 고령노동자들을 위해 처방된다.**

편안한 공간에서의 적절한 휴식은 고령노동자들에게 특히 필요한 일이다. 동시에 많은 근로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이므로 휴게실 개선 사업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환영받을 일이다. 또 기업 입장에서든 근무 중의 적절한 휴식으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윈윈할 수 있어서 매우 현명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 건강에서 시작해 일의 능률과 개인 행복으로

물리적인 환경 개선 외에 기업 차원에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고령노동자들을 위한 개선활동이다.

건강관리 프로그램에서는 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의 역할이 컸다. 고령노동자들과 1:1로 건강상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업무 수행 시 신체적 어려움 등에 대해 허심탄화하게 얘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고령노동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금연 및 음주 관리, 식습관 및 영양지도, 체력 향상을 위한 운동 지도도 고령노동자들을 위해 처방된다. 혈압이 높으면서도 흡연이나 음주가 잦은 근로자는

교육과 상담을 통해 흡연과 음주가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 일깨워 금연과 절주를 유도하고 있다.

평소 과식하거나 나트륨과 알코올을 과잉 섭취하는 등 식생활 개선 요소를 가진 근로자에게는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한 식생활을 제안하고 개선을 돕고 있다. 또한 노화로 인해 신체능력이 저하돼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 근로자로 하여금 스스로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시행한 결과 질병 유소견자의 숫자가 감소했다. 매년 정기 건강진단 진행 시 발생하는 유소견자 수와 재검율이 0.5~1%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니 활기차게 일할 수 있고, 업무 분위기까지 변화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에스케이하이텍은 앞으로는 고령노동자의 건강 검진 및 예방 접종, 개인 건강 차트관리를 세심히 실시해 근무자 개인 건강에 필요한 운동, 식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check health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근무자 개인 건강에 필요한 운동, 식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check health 전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스케이  
하이텍(주)

## 이승진 지원팀 대리

기본에서 출발해 사람을 생각하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에스케이하이텍에서 조경과 미화 업무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화 노동자들의 처우나 휴게공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에, 회사에서는 전체적으로 근로자들의 실 권리를 개선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여성근로자들은 정년이 65세로, 다른 분야보다 장기적으로 일하는 편입니다. 더 편안하게 오랫동안 근무하려면 휴게공간이 필수적이며, 이는 보건안전과 연결됩니다.

고령노동자 환경 개선은 일단 '기본'에서 출발했습니다. 휴게시간 보장이나, 실 공간 확보 등 기본적인 것만 잘 지켜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기본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마련된 기준과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해 환경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예전부터 저희는 나름의 안전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한번 더 갱신된 셈입니다. 앞으로도 안전보건을 위한 기준은 계속 상향 갱신될 것입니다. 안전보건을 일하는 데 가장 중요하니까요. 직장에서 일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환경 개선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더욱 웃으면서 일하고, 편안히 쉬는 능력이 오른다고 합니다. 미화업무는 서비스업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질 게 지켜지니까 일하는 사람이 즐겁고, 그래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즐거워지는 선순환이 이뤄지는 듯합니다. 또 지원부서인 저희도 보람이 크고요. 이것이 바로 환경 개선을 비용으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 Key Message

고령노동자 환경 개선은 일단 '기본'에서 출발했습니다. 휴게시간 보장이나, 실 공간 확보 등 그리고 점차 기본 이상이 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마련된 기준과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해 환경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주발렉스  
서비스석순희<sup>(63)</sup> 사원실 공간까지 배려해주는  
회사가 고맙습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경영지원 본관에서 건물 환경미화를 담당하고 있으며 6년째 근무 중입니다. 전에는 전자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환경미화 업무는 이곳이 처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환경미화 근무자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회사는 워낙 근무환경이 좋고, 여건도 점차 더 좋아지고 있어 일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도시락을 갖고 와서 먹거나 식사를 못할 경우도 많았는데, 환경 개선 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규칙적인 식사도 가능해지고, 마련해주신 휴게실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됐습니다. 회사가 휴식에 건강까지 챙겨주니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Best Practice

입사 초기에는 식사를 개인이 해결하느라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거나 식사를 못할 경우도 많아 힘들었는데, 회사에서 근무자를 위한 환경 개선에 힘을 쏟아주셔서 규칙적인 식사도 가능하고, 마련해 주신 휴게실에서 편하게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간은 약 500평 정도 됩니다. 청소하며 한 바퀴 돌고 와서 휴게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당뇨가 있어서 간강을 위해서도 자주 움직이는 것이 좋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안락하게 갖춰진 휴게실에서 쉴 때마다 몸도 마음도 여유를 얻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많다 보니 가끔 손가락 관절이 아픈답니다. 하지만 회사에는 작업하기 편한 환경과 설비가 갖춰져 있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고, 혹시 아픈 일이 있더라도 사내병원이 있어 든든합니다. 사내 병원을 찾아가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개인 건강도 점검할 수 있으니까요. 전에는 물리치료, 의사 처방 등이 업무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회사의 배려로 친절한 상담에 물리치료, 의사 처방까지 받고 일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회사가 건강까지 챙겨주니 이에 보답해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려 합니다.





# 건강한 작업환경이 좋은 기업의 척도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부평점

롯데마트는 롯데쇼핑 롯데마트사업부에서 운영하는 국내의 대표적인 대형마트다. 1998년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강변점을 개점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며, 롯데마트 부평점은 49번째로 오픈한 지점이다.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위치한 롯데마트 부평점은 최신시설의 문화센터, 즐겁게 독서할 수 있는 대형서점 및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소극장 등 약 30여개의 다양한 고객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60여개가 넘는 패션 브랜드 및 최상의 상품으로 고객들을 만나고 있다.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일하는 410여 명 근로자 중 30여 명이 고령노동자로 롯데마트 부평점이 조성한 친화적 작업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 >> 고령노동자 친화형 작업환경 개선 활동

- 매월 1회 건강검진
- 작업 전 안전을 위한 운동
- 휴게시설 및 건강관리실 운영
- 위험작업 시 관리자 동행 작업



대표

이원준, 강희태

설립일

2006년 12월 24일  
(롯데마트 부평점)

인원

410여 명

매출액

720억 원  
(롯데마트 부평점)

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296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부평점

## 롯데쇼핑(주) 롯데마트 부평점 작업환경 하나하나를 가족의 눈으로 봅니다

### 일에 대한 열정은 인정, 체력적 차이는 배려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일하는 이들은 직영직원 130여 명, 협력업체 30여 명, 동료직원 250여 명 등 총 410여 명이다. 이들 중 고령노동자에 해당하는 55세 이상 근로자 수는 모기업 20명, 협력업체 10명 내외로 대략 30명이다. 모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고령노동자는 고객지원파트 계산 또는 도와센터에서 근무한다. 현재 55세 이상의 고령노동자는 부평점 오픈 당시 입사해 12년째 근무 중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시작부터 함께해 온 사람이 많은 만큼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고령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신경을 쓰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미 고령노동자들을 위한 본사 차원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 고령노동자는 가능한 한 신선파트 농산, 축산, 수산이나 조리 등 칼과 같은 위험한 조리도구를 사용하는 파트 근무를 피하게 하려는 것이다. 모기업 근로자 외 협력업체의 경우 고령노동자는 대부분 T.O.S의 미화파트에서 근무한다. 미화 업무는 위험 요소가 많이 발생하지 않고, 고령노동자도 손쉽게 적응하고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령자도 자기 몫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30여 명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일하는  
410여 명 중 55세 이상  
고령노동자는 30여 명이다.

1월 회

직원들의 스트레스 측정은  
매년 1회 씩 시행한다.  
설문방식으로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면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인사, 노무 업무를 담당하며 동시에 공생프로그램 협력단의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최영미 사원은 “나이를 잊고 열심히 일하는 이들을 보면서 고령이라고 특별 대우하기보다는 같은 직원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분위기가 고령노동자를 위한 친화적 환경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부평점 구성원들은 고령노동자를 육체적으로 불리해서 업무를 해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기존부터 꾸준히 해오던 업무라서 그간의 노하우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는 관점으로 바라본다. 고령노동자들은 나이 라는 숫자가 많은 것일 뿐,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동료라고 생각하는 분위기다.

###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하지만 나이로 인한 육체적인 차이가 존재하기에, 롯데마트 부평점에서는 대비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령노동자가 작업 때문에 질환이 발생한다면 보통 급성 질환보다는 오랜 기간 반복된 업무로 인한 만성질환일 가능성이 높다.

롯데쇼핑 차원에서는 그간 근무하면서 생긴 직업병이라면 유상으로 쉴 수 있는 사상병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업 환경에서는

아무리 정당한 병가사용이라 해도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다.

롯데마트 부평점은 지점 차원에서 나서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사상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고령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고령노동자에게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노동자들에게 더 환영받는다.

또한 고령노동자 질환으로 인한 공백이 발생할 경우 다른 파트에서 지원을 한다. 복직 전까지 계속 지원해 해당 파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비고령노동자와 고령노동자 간의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 그럴 때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안을 찾아 실행한다. 예를 들어 고령노동자들은 전산작업이 익숙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생겼다고 가정하자. 그럴 때는 전산작업이 익숙한 직원이 대신 진행하고 그 외에

고령이라고 특별 대우하기보다는  
같은 직원으로 동등하게 대하는  
분위기가 고령노동자를 위한  
친화적 환경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른 작업을 고령노동자가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전환하는 식이다. 또한 가능한 고위험 파트에 고령노동자를 배치하지 않는 본사의 지침도 실행하고 있다. 농산, 축산, 수산이나 조리 등 모기업 직원이 담당하는 분야뿐 아니라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미화업무에서도 위험한 작업은 고령노동자를 대체한다. 미화업무에 위험요소가 있을 때는 협력업체 관리자 선에서 이를 대신한다. 부득이하게 노동자가 시행해야 한다면 관리자가 동행해 관리자가 주도해 작업한다.

##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함께 챙긴다

롯데마트 부평점은 안전의 사후처리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는 안전보건 정책 속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고령노동자들에게 권장하는 이유다. 롯데마트 부평점은 현재 안전보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월 1회 보건 대행업체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지점을 방문한다. 방문 전 일정을 게시해 방문날짜에 정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 매년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 후 2차 검진 대상자가 나올 시 2차 검진을 독려하며, 매월 방문하는 보건 대행업체와도 공유해 정기적으로 꾸준히 검진한다. 또한 작업 전에 안전사고 대비 스트레칭을 시행한 후 작업을 시작하는 원칙을

**-80~90%**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후  
부평점의 안전사고는 80~90% 정도  
감소했다.

**가능한 고위험 파트에  
고령노동자를 배치하지 않는  
본사의 지침도 실행하고 있다.**

성실히 지키고 있다. 스트레칭은 실행이 간편해서 효과를 의심하기 쉽지만 스트레칭 후 작업을 하면 몸이 굳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는 경험을 통해 롯데마트 부평점 전체가 체감하고 있다.

매년 1회 직원들의 스트레스 측정도 진행한다. 설문방식으로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직원들을 개별 면담해 문제를 정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잠시 휴식이 필요할 때,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과 건강관리실도 유용한 시설이다. 특히 휴게시설에는 안마의자가 있어 고령노동자들이 즐겨 이용한다.

## 따뜻한 말 한마디가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고령노동자들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 함께 활동하고 정서적으로 유대할 수 있는 동호회에 관심이 많다. 부평점은 사내 동호회로 등산동호회와 영화동호회가 있는데, 고령노동자들은 매월 진행되는 등산동호회 정기 등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편이다.

고령노동자들이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 고령노동자들도 부평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며, 동료들과도 활발하게 교류한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조성 후 부평점의 안전사고는 이전보다 80~90% 정도 감소했다. 그리고 고령노동자 또한 스스로 사전에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변화됐다.

앞으로도 롯데마트 부평점은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이 있는 고령노동자들이 건강하게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고령노동자도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도록 독려하고자 한다.

**스트레칭 후 작업을 하면  
몸이 굳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경감시킬 수 있다.**

공생프로그램 협력단의 간사로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에 한 몫을 하고 있는 최영미 사원은 고령노동자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느낀 소감과 다짐을 얘기한다.

“일은 누구나 힘듭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고령노동자는 더 힘이 듭니다. 그래서 활기차게 일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근무 시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말 한 마디라도 더 나눌 수 있도록 기업과 직원들을 독려합니다.”





## 송혜경 미화팀장



### 안전사고는 미리 예방한다는 원칙으로 일합니다

저는 롯데마트 부평점의 협력업체인 T.O.S 소속으로 미화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시행 중인 공생협력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저희는 현장실사를 통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고 향후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마트 부평점 현장의 T.O.S 미화팀 11명 인원 중 60세 이상 고령은 7명에 이릅니다. 업무 특성상 허리를 굽혀 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저희 직원들은 허리통증 및 기관지 질환으로 종종 고생을 합니다. 또한 무릎과 어깨 통증도 곧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쉽게 자주 발생하지만, 조금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작업자 모두에게 업무 중이나 기타 근무지 투입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노동자로서 항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사전교육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호 장구를 사용해 안전보건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프로그램 실시 이후 현장 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요소를 사전에 알게 돼 안전사고 건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체감합니다.

앞으로는 부평점에서 매년 실시하는 건강검진으로 본인의 건강을 체크해 현장에서 진행하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노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좀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 Key Message

업무 중이나 기타 근무지 투입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노동자 사전교육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호 장구를 사용해 안전보건 위험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 김숙자<sup>(62)</sup> 미화팀



###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저를 건강하게 합니다

롯데마트 부평점에서 현재까지 5년째 재직하고 있습니다. 롯데마트 부평점이 과거 근무했던 곳과 다른 점은 사전교육을 통한 안전환경이 잘 조성돼 있다는 겁니다. 위험한 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관리자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는 게 가장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고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채워 주십니다. 저희는 매일 일하기 전에 미팅을 해요. 미팅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관한 것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습니다.

일하면서 크게 다친 적은 없지만 정 몸이 아프면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병원에 다녀오곤 합니다. 매일 복용하는 혈압약을 타러 병원에 가야할 때가 있는데 눈치 주시는 일 같은 건 전혀 없고, 저희 입장에서 편하게 대해 주십니다.

나이 들어 일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힘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위험요소도 미리미리 교육받고, 위험한 일은 관리자분들과 동행해서 주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이다 보니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 같고,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래 근무하고 싶은 직장입니다. 집에서 스트레스 받던 것도 동료들과 화목하게 일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서 저는 집보다도 직장이 좋아요.

모든 것을 근로자 입장에서 배려해 주시고 불편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채워 주십니다. 저희는 매일 일하기 전에 미팅을 해요. 미팅하면서 부족한 점은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업무에 관한 것들을 서슴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 좋습니다.

#### Best Practice



2019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우수사례집

## 스마트 시니어 행복한 시너지

2019 - 사업관리 - 1517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처 안전보건공단 사업관리실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가로 400

전화 052-7030-613, 763, 1644-4544

홈페이지 [www.kosha.or.kr](http://www.kosha.or.kr)

편집 · 디자인 방형식 디자인 02-2082-6257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하며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려면  
안전보건공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2019

### 1 전문위원 제도

스마트 시니어, 즉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고령노동자들을  
활용하는 전문위원 제도는 한창 때 일하던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현업을 돕는 제도로 만족감이 높다.

### 2 고령노동자 생애주기 재설계 교육

퇴직 이후의 준비를 위한 고령노동자의  
업무부담을 덜어준다는 면과 함께 이후  
생애 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면에서 고령노동자 친화적 제도로  
환영받고 있다.

# 7選

2019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우수사례  
선

모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만드는  
고령노동자 친화적 작업환경

### 3 근골예방 TFT

근골격계 질환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작업  
환경 및 자세 개선에 대한 마인드를  
심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공학적 개선 및 사례도 꾸준히  
업데이트하며 공유하고 있다.

### 4 휴게실 설치 운영 대한 기준 수립

휴게면적은 휴게실 사용을 위한 이동  
거리를 반영해 건물당 최소 1개소, 1인  
2㎡의 휴게 공간으로 기준을 세웠다.  
노동부 권고 기준은 1인당 1㎡이다.

### 5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령노동자들과 1:1로 건강상담을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어려운 질병이나 업무 수행 시 신체적 어려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  
함으로써 고령노동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 6 사상평가 제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눈치 보지 않고 사상평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서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고령노동자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고령노동자에게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령노동자들에게 더 환영받고 있다.

### 7 스트레스 측정 진행

설문방식으로 진행 후 결과에 따라  
스트레스 수치가 높은 직원들을  
개별 면담해 문제를 정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